

## 건의문

학습과 인성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재 육성에 공헌하는 귀 기관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000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동물공연업체인 ‘퍼시픽랜드’의 동물쇼를 단체 관람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퍼시픽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옥석)’는 2009 년부터 어민들을 매수해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공연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첨부자료 참조), 2012 년 3 월 제주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불법매집한 돌고래 11 마리 중 생존한 5 마리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포획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계속하였지만 결국 2013 년 3 월 28 일 대법원에서도 몰수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다 처벌을 받은 업체를 학생들이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불법 행위가 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오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중 원숭이 등 야생동물들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히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명백한 동물학대적 요소를 담고 있어 우려됩니다.

귀 기관에서 수학여행 시 ‘퍼시픽랜드’의 동물쇼 관람을 자제하고,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교육 내용으로 대체해 주신다면 동물복지 교육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귀 기관이 미래의 인재들에게 생명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첨부자료- 대법원 판결문

2013 년 0 월 0 일

성명 000 외 0 인